

발화자	발화 내용
정우택	국회의원하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 방정환 기념사업회도 두 개 정도가 있었던거 같아요. 몇 개가 있나요.
A	큰 상이죠.
정우택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주 아동 문학 하시는 분들이 활발한 편인가요?
A	그런데 점점 노령화되어서 젊은이들이 이게 좀
정우택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A	(칭취불가) 한국인 문학이나 서양문학이나 아동문학이나
정우택	선생님께서서는 연세가
A	칠십대 중반 용띠입니다. 사십년생.
정우택	그러시구나. 그러며는 학교 다니실 때가 60년대.
A	그렇죠. 60년대 연변대학.
정우택	예. 거기에서도 그러면 조선 문학 쪽으로 문학 전공 하시고. 그 이후에는.
A	편집부. (칭취불가)
정우택	계속 그때부터 저기를 아동문학 쪽을 대학 다니실 때부터 아동 문학을 하시겠다.
A	첫 작품도 역시 처녀작이가 동시지. 학생 때.
정우택	예. 그럼 그 때는 초창기에는 주로 이렇게 북한쪽 영향을.
A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정우택	고거에 어떤 차이를 느끼셨어요? 나중에 한국하고 북한쪽하고 아동문학의 차이를
A	작품을 계속해가지고 가송
정우택	가송?
A	(칭취불가)
정우택	틀에 얽매어서
A	실제로 운명에서의 (칭취불가)
정우택	기교나 이런 쪽에서. 지금은 연변 안에서 동요를 아동 문학에 대한 거기 예전에 그 선생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
A	세 살 때 조선 북조선에서 들어왔습니다.

정우택	어느 동네요?
A	세 살 때 함경남 북청.
정우택	북청. 어 김동환.
A	세 살 때.
정우택	북청이 그 문학적으로 상당히 그 저기 연륜이 깊은 동네고. 거기서 훌륭한 문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부모님들은 만주로 오신게 몇 년 쯤에.
A	그러니까 43 년도요.
정우택	43 년도에 오셨구나. 그러면 부모님들은 나중에 계시면서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A	없지.
정우택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여기서 계속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럼 선생님도 아리랑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A	듣긴 들었는데 (청취불가) 민족이 전통이 (청취불가)
정우택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께서는 아리랑 같은 것들을 부르시고 그랬을거 아니에요.
A	부모님은 (청취불가)
정우택	아리랑은 음악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리랑을 다 그냥 부르지 않았나요.
A	지금도 한국의 KBS 에서 민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취불가)
정우택	요즘 이 아리랑들 동요나 이런 아동문학도 예전하고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나요?
A	그러니까 동심을 살리면 어린이 동심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창작 기호면에서 연구하고 있고 시선을 돌려서.
정우택	그 아동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선생님 다니실 때는 또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60 년대 고 전에는 민족에 대한 열망들이 특히 있다가 또 이 중국의 투쟁과 문화 혁명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민족을 이야기 하는 것들이 불안을 겪다가 또 개혁개방 시대에 민족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상화 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아동 문학도 시대에 따라서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우택	잠깐 여기 앉아서.

A	이념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었는데. 그러며는 그럼. 예 벗어나서 어린이들이 동심을 살려가지고서리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에는 창작 주체가 좀 (청취불가) 지금은 (청취불가) 자연도 좋고이 산이도 좋고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지금 창작 (청취불가) 확실히 한국의 우리 선생님들의 창작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따라 잡아서리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리 격식화 하는 틀을 벗어나서 자주 자유적인 통신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비교적 소박하면서도 생생한.
정우택	예전에는 그러면 국가와 이념과 이런 것들을 주로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거기에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혼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A	아 정말 조선족 한국서 출생한 분들도 있고요 고국이죠. 민족이. 조국은 중국이고. 소수민족이라서.
정우택	그러며는 그 중국 한족으로서 동요와 동시를 쓴 거 하고. 이 조선족으로 동요와 동시를 쓴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실제로 중국의 한족들이 쓴 동요 동시들이 이전보다 많이 개편됐습니다.
정우택	어떻게 개편이
A	역시 한족이나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이 다 가수한 틀이 매우 이런 건데 한족들도 많이 탈피했습니다.
정우택	특히 조선족의 아동문학의 방향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역시 아동문학이 조선족 문학의 한 부분인데 이 아동 문학이 어린이들도 아동문학 창작을 하면 성인들이 아동문학 창작의 임함에서도 정말 중시하지 않게 되면 성인문학도 그렇고에 크게 발전을.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가서에 단군 문학상을 설치했습니다. 이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큰 상을 설치 한게가 없습니다. 조선에서 (청취불가) 문학상 설치한 게 시작했는데 한 이십년 일회하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년에 한번씩 일회 삼회 하는데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족이 그 문학이 발전을 위해서 상을 상당히 상을 우리 중국이 인민 편에 15만원 대단합니다. 15만원이라는게.
정우택	그러며는 그거를 좀 어떻게 조선 어린이들 지금 성장하는 어린이들.
A	성인 문학 소설. 시. 평론. 아동문학 다 들어갔습니다.
정우택	선생님께서 아동 문학 중심으로 하시는데.
A	추천을 받아야지요. 추천하고 추천하면 이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방정환 문학상 탄거는 동시집 고드름 이래서 전국의 우리 문학상 큰 소수민족 문학상이 그게 다 일류의 문학상인데. 아동문학 어떤 걸 그 다음부터 정지를 했습니다. 그게 다 문제지. 기실은. 중국 작가 협회에서 한 개의 아동문학 분과 아동문학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하는 걸 뺏는다는 건. 그리고 중국 조선족들이 어떻게 한어도 중문으로 창작하겠습니까. 추천 할 수도 없고 책도 나올 수도 없고. 이 어떤 걸 추수한 거는 상당히 문제지요. 이번 단군 문학상을 아동문학상을 아동문학 한 부분을 담당하게 넣었습니다.

정우택	예, 잘하셨습니다. 아까 민족의 한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조선족들의 어떤 그 문학의 특징. 소수민족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특별히 조선족들의 특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아.
정우택	그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께서 문학을 하시면서.
A	어떤 그 창작에 있어서 창작에서의 크게 어느 정도 (칭취불가) 제재 면에서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창작에서 구속이 없죠.
정우택	구속이 없으면서도 이게 우리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 어떤 조선의 뭐랄까 민족적 특성이랄까 요런 것들이 한글로 이렇게 쓰게 하는게 지도하는데 있어서 조금 특별히 강조해야 된달까 주목해야 된달까. 어떤 또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한족 아이들이나 거기 조선족 아이들이나 섞여서 있고 선생님 세대는 그래도 내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자부심이라는게. 지금 아이들은 문화가 매우 다양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지금 참 가슴 아픈거는 조선족 학생 수가 줄어 들고 학교가 폐쇄되고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중국 조선족 어린이 글짓기 콩쿠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취불가) 아동 편집부에서 유스트 백일장이 있고 연변 방송에 청소년 글짓기 콩쿨이 있고 독후감 쓰기 콩쿨이 있고에. 우리글 우리말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아이들이 한족 학교에가는 편향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한족 아이들이 조선족 학교에 오는게 일정 수를 차지 합니다. 한족 부모들이 한족이지만 조선족 글과 언어를 배우면 앞으로 한국 가고 그렇고이 문자를 쓸 수 있.
정우택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좀 우리 젊은 지금 선생님들 우리 조선족 아이들에게 동시나 시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방향에서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게 있으신가요?
A	요번에 오늘 시상 했는데 상당히 좋지요. 다들 글짓기 장 같은 글짓기도 있지만 또 시에서 시조도 한 개 부분이요. 시조가 특히 조선족이 전통을 중시해 상당히. 세 번째 교원 시조집이지요. 교원들부터 시조를 상당히 중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시조 창작 지도 한다던가 의미에서. 이게 참 잘 된 거지요. 이렇게 된게. 그런 의미에서 허정조 선생이 (칭취불가) 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정우택	이런 그 동요나 아동문학을 하는데 있어서 아리랑 이라는가 민요라는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요나 아동문학에 연결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적 있나요?
A	빈약합니다. 확실히 아직. 성인들거는 민요 노래라던가 연세있는 분들이 이렇게 할텐데. 아이들은 중시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죠. 아저 노래 콩쿨이나 할 때면 민요라던가 있습니다. 이면에서 교원들도 적고에 특히 민요 이면에서

	중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택	지금 현재 부족하다.
A	(칭취불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민요를 부르고 그러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우택	선생님께서 성장해 오시면서 조선의 독특한 민요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A	하하. 또 노래해야 되는.
정우택	아닙니다. 가사.
A	듣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우택	들으신거 어떤거를 들으신.
A	지금 말하려니까.
정우택	아리랑. 또. 들으신거 중에 기억 나시는거. 아리랑. 도라지.
A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지요. 날 넘겨주소.
진용선	선생님 아리랑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금 부르신 거는.
A	배운 적은 없습니다.
진용선	강원도 아리랑이거든요. 이게.
A	(칭취불가)
여성	여성 세 분 들어가 앉으세요.
정우택	에에. 이런 가운데 자리를 앉어.. 선생님께서
A	연변 예술학원 지금 예술학원 원래 예술 학교인데 거기 입학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확실히 우리 민요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민요를 잘 배우는 이름 있는 가수가 적지 않습니다. 가수들도 그렇고 민요 기초가.
정우택	선생님도 그 선생님께서 동요를 하셨는데 이 민요적인 거를 좀 의식적으로 그 위에다 적으려고 애쓰신 적이 없으십니까?
A	에 없습니다.
정우택	그러면 동요 형식은 주로 선생님께서 중국에서의 동요 형식을
A	이거는 한국 동요들의 거기의 거 맞습니다. 그게 특징 살려서

진용선	조금 전에 불렀던 아리랑 있죠. 그게 강원도 아리랑인데 그걸 어디서 처음 들으신 거 같으세요?
A	글쎄 어디라고 딱 (칭취불가)
정우택	예 훌륭하십니다.
A	한때 연변 예술학교에서 가사 창작 (칭취불가) 가사 창작만 했는데 그 다음에 학기말에는 아이들이 부르기가 민요가 적지 않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제목부터 (칭취불가) 경상도 아리랑 무슨무슨 아리랑 무슨 아리랑 많죠. 좋은거 많더구만요.
정우택	밀양 아리랑은
A	밀양 아리랑.
정우택	진도 아리랑
A	진도 진도 아리랑
정우택	선생님 아까 아리랑 부탁을 드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걸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독특하게 강원도 아리랑을
A	그렇게 됐는데
진용선	이쪽에서 많이 부르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봤는데 조선족 가수들이 조금 전에 부른 아리랑은 조선족 가수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선생님 그걸 들으셔서 저절로 배우셨는지
A	항상 많이 들으니까 고조 할 줄 모르고 그렇지마는.
정우택	어려서 아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알고 계셨던가요?
A	어렸을 때요? 중학교 2 학년부터 위에서 나왔습니다. 천길이라는데 중학교가 ○○ 중학교 ○○중학교 ○○ 중학교가 합해서 (칭취불가)
진용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신거지요.
A	나중에
진용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리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A	그게
진용선	아리랑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확 떠오르는 게
A	글쎄 마땅히 말하기가
정우택	고향
진용선	어머니 아니며는 고개 사랑 이별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A	사랑. 딱 말하기가 굳이 ○○하고
진용선	선생님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쭙보질 않는 거예요. (-끝)